TREE WISHING TO BE A BIRD
새가 되고 싶은 나무
아주대학교

道를 닦는 '道具'로서의 오브제

이어령 / 이화여자대학교 석학교수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 물을 흐르게 했다. 그리고 네르발은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 싸늘하게 식은 돌덩이 속에서 수십만년 전 火山이 폭발하던 때의 열기를 끌어낸다. 그러나 우리 허동화님은 아주 먼 옛날 남들이 쓰다버린 나무조각, 쇠붙이 속에서 따스한 영혼의 숨결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와 네르발의 상상력과도 다른 무엇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라져가는 사물들과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만 얻어 낼 수 있는 따뜻한 영혼들이며 그 체열인 것이다.

지팡이로 대상을 치거나 혹은 일방적인 꿈속으로 그 대상물을 녹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동화님은 우선 그것들을 소중하게 만진다. 그렇게 해서 시간들도 지우지 못한 그 오묘한 곡선과 살점처럼 손때가 묻은 그 두툼한 볼륨을 분간해 낸다. 이렇게 묵은 기구들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자신보다 그 물건을 만들었던 옛사람들의 손과 그 마음과 교감하는 일종의 주술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녹슨 쇠 갈고리이거나 혹은 뭉뚝하게 그 나무가 다 닳아버린 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형태로 우리 앞에 다시 출현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옛날 농기구들이나 일상적인 그 기구들은 원점에서 분해되고 해체되었다가 다시 결합되면서 아주 작은 화음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어느 것이 우리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것이고 어느 부분이 허동화님의 손길이 새로 닿은 것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다. 집단과 개인 옛것과 오늘 그리고 원형과 변형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단지 허동화님의 작품 속에서 밤에서 피어오르는 흙의 이야기, 부엌이나 헛간에서 들려오는 불과 바람의 속삭임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바다와 산골짝에서 일생을 묻은 漁夫와 樵夫의 기나긴 사연과 거듭 태어나는 드라마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허동화님이 만들어내는 그 화음과 드라마의 기술은 한국문화의 신비한 대반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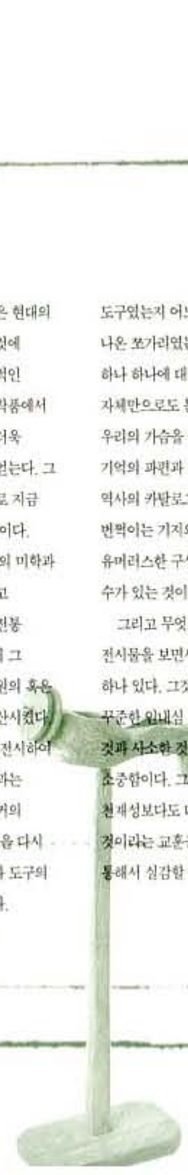
문화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원시적인 기술을 '브리콜라쥬'라고 부른다. 미리 어떤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소재들을 보면서 그 특성 속에서 연장이나 影刻物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그 우연성과 사물성은 현대인의 기술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풍요한 생명력과 자연의 역동감을 불러 일으킨다. 원래 우리가 道具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이니 도리니 할 때의 道자가 들어 있듯이 도구의 원뜻은 종교적으로 도를 닦기 위한 기물을 의미했던 것이다.

허동화님이 다루고 있는 그 오브제의 세계는 바로 파손되고 마멸된 그 도구들에게 본래의 뜻을 부여하는 작업인 것이며 오직 기능적인 물질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그 도구들을 준엄하게 비판하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냉장고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현대의 물건들은 단지 스크랩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옛날의 일상적인 도구들은 지금 허동화님의 작품에서 보듯이 오히려 해체되면서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그 가능성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전시된 그 작품들이다.

바랜 보자기 속에서 한국의 미학과 그 문화의 값어치를 발견하고 보존해온 허동화님은 이번 전통 도구의 재생작업에서는 다시 그 이차원의 세계를 넘어 삼차원의 혹은 사차원의 입체적 세계로 확산시켰다. 뒤상이 변기를 있는 그대로 전시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과는 또다른 의미로 허동화님은 거의 원형에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사물과 도구의 아름다움을 재창조한 것이다.

그것들이 어디에다 쓰던 도구였는지 어느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쪼가리였는지 그 구성물의 자료 하나 하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 이같은 전시회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더구나 기억의 파편과 생활의 녹슴을 그리고 역사의 카탈로그 저편에서 허동화님의 번뜩이는 기지와 소박한 상상력과 그 유머러스한 구성력을 직접 만나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전시물을 보면서 잊어서는 안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나긴 시간과 무궁한 입네심 그리고 사라져 가는 것과 사소한 것들에 바치는 애정의 소중함이다. 그것은 어떠한 천재성보다도 더욱 창조적이며 값진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실감할 수 있다.



The Objet : The Tool for Finding the Way

Lee U-Ryong / Professor, Ehwa Womans University

Moses struck a rock and caused water to flow. Nerval, drawing on the powers of imagination, drew smoke out of rock, which lay cold and dormant since erupting into volcanic flames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ago. Similarly, there is an artist in our midst, Hur Dong-Hwa, who breathes spirit into broken bits of wood and steel discarded long ago by strangers. And his works have something that sets them apart from Moses stick and Nerbals imagination. They bear the heat of life which emanates only from intimate exchange with old and worn objects. Rather than striking the object or pulling the object into a subjective fantasy, Hur Dong-Hwa first caresses the objects. And by touch, he comes in contact with the subtle lines and flesh-like volume which do not fade with time. The experience is an enchantment of sorts, becoming intimate with the creators of the past. And through these steps, objects, whether they are rusted rakes or other scrap instruments, rubbed raw and dull, are then seen anew. Everyday farming tools, taken apart and put back together, make up entirely new, yet harmonized, works. This process links Hurs work to those of earlier creators; in fact the boundaries between them are blurred. The effort to differentiate between group and individual, new and old, original and changed is itself rendered meaningless.

We have only to listen to the tale of the soil, the whispers of wind and fire from the kitchen and hearth that echo from within Hurs works. And we watch the drama unfold, of stories of villagers and fishermen who buried their passions in the mountains and the sea. The technology behind the harmony and drama of Hurs works are part of the larger rubric of Korea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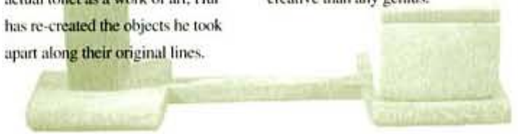
Anthropologists call prehistoric technology pre-collage. That is, the tools and techniques were not the result of planning and deliberation. Rather, they arose spontaneously from a dialogue with the materials at hand. The spontaneity and flexibility involved in this kind of creation express a vitality and oneness with nature that cannot be found in modern techniques. What we call tools, or do-gu were not only implements that facilitated the task at hand. But as seen in the roots of the word do-gu (tool) and do-duk, (morality) and do-ri, (duty) show, the first syllable do, or the Way, tools were vessels for to guide one in the eternal Way.

Hurs endeavors to break apart and re-compose old artifacts restore meaning to defaced and worn objects. His works are a vehement criticism of the way we reduce tools to simple functions, robbing them of their meaning. Contemporary appliances like television sets, refrigerators, and cars may never be good for anything beyond scrapping, but the everyday tools that Hur reworks exhibit a more poignant beauty for having been worn down. And that is the character expressed most clearly in this exhibition.

Hur has gone beyond the second dimension of finding meaning in tarnished vessels and celebrating Koreas aesthetic and cultural traditions. In these works he has reached a third or even fourth dimension. Going a step beyond Duchamp, who shocked viewers when he exhibited an actual toilet as a work of art, Hur has re-created the objects he took apart along their original lines. The original is then remade, offering a different kind of beauty.

This exhibition is enthralling, even as it inspire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The viewer wonders about the history of each object, where it comes from, and what it might have been a part of. We can see firsthand Hurs creativity and resourcefulness in weaving together these fragments of memory, the dust of life, and the catalog of history.

However, there is one thing we must keep in mind as we look at his works. It is all too easy to forget the affection we must reserve for time, patience, and things great and small. The moral is clear : devotion is more creative than any genius.



생각하는 공작새 (The Thinking Peac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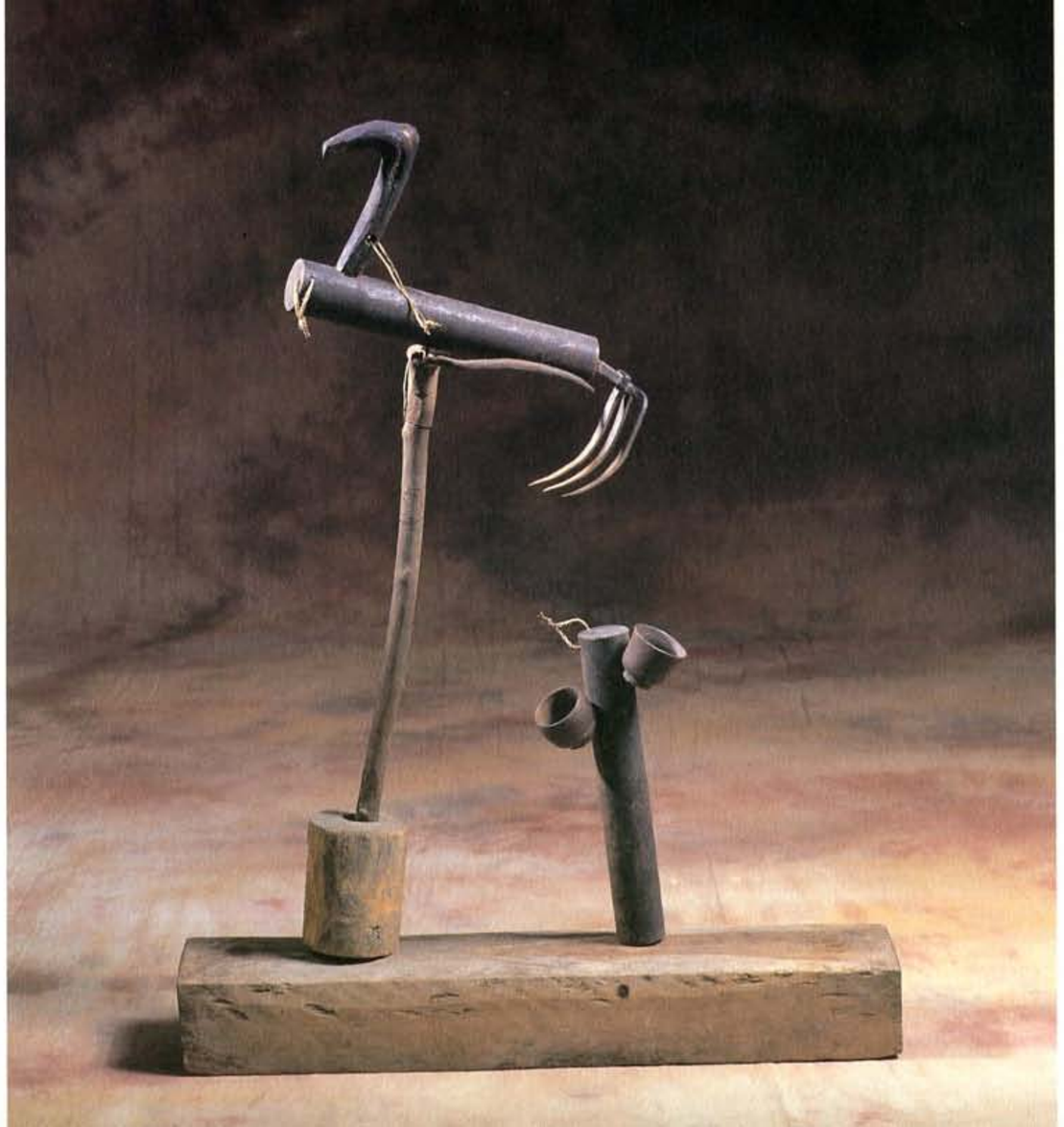
손잡이가 빠진 낙지 잡는 새 가닥 갈쿠리 중간에 오무렸다 폈다 하는 물레 날개 두 개를 달고 꼬리로는 두레박 건지는 갈고리를 매달아 홍두깨에 올려놓았다. 1,2세기 전에 오늘날 미학적인 눈썰미로도 만들기 어려운 새무리 모양으로 낙지 잡는 갈쿠리를 만들어 쓸 줄 알았던 어느 어부의 감각이 온 어촌에 퍼져 사용되었다니, 참으로 놀랍다. 고개를 갸웃 기울이고 다소곳이 챗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생각을 많이 하는 이가 존경을 받듯 생각없이 무심히 지나다 이 새를 마주하면 어느새 호르러졌던 마음의 가닥이 정숙해지고 그 고즈넉한 공위기에 빨려든다. 그리고 그 생각이 긍금해진다. 꼬리처럼 전들거리게 달린 두레박 쇠갈쿠리는 상사초 꽃잎처럼 여섯 가닥이 벙그러져서 공작새 꼬리로 더없이 맞춤이다. 이 쇠갈쿠리는 우물에 빠진 두레박을 건져올릴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시골 봉황 (Country Phoenix)

나무 다듬잇대 위에 부목을 올려놓고 그 위에 나무 밀대를 비스듬히 꽂았다. 밀대 꼭대기에 곱어 모으는 도구를 꼬리로 하고 망태기 등속을 매다는 고리로 머리를 만들었다. 살풋 부는 바람에 꼬리가 흔들리는 듯하다. 솔바람 물바람을 겨느리고 그윽함을 한껏 들려준 채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하다.

촉새 (Bunting Bird)

먹통 새 몸집에 곡선이 날렵해서 아름다운 청동 수저 꼬리를 달았다. 청동 수저는 산화되어 곡면이 뚫리고 푸르스름하게 녹이 슬어 꼬리가 더욱 이쁘다. 그리고 어떠나 많은 못을 두드렸던지 쇠가 뒤집힌, 맞은편에는 송곳으로 사용했던 망치를 새 머리로 달았다. 생김새가 잘데없이 촉새다.



둥지 [Nest]

부서진 맷돌 받침에 홍두깨를 박고
맷돌 받침과 솔잎 갈퀴로 어미새를
만들었다. 아래쪽에는 소죽고리
서너 개로 둥지에 오물오물 모여
있는 새끼들을 늘어놓았다.
어미새는 멀리 들판을 날아 벌레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느라
분주하다. 새끼들도 실세라
재재거리며 어미새를 올려다본다

심술 맞은 새
[Bird of Mischief]

등잔을 올려놓는 나무 등잔대는
가장자리 이가 나가고 헐었으나 대를
떠받치는 받침대에는 물레발아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 받침대 위에는
닳아서 반지르르하고 손때가 묻어서
가무잡잡한 먹통을 올려 놓았다. 먹통
새는 심통이 났는지 퉁명스럽게 부리를
비죽 내밀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

장닭
[Roo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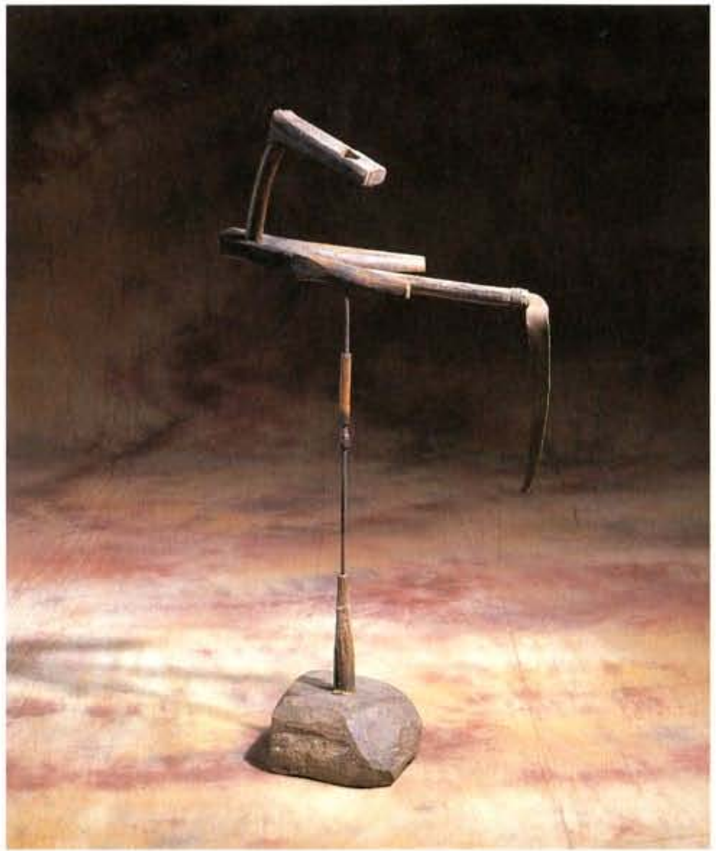
실 고르는 나무 받침대에 먹통을
올려 달고 작은 낫 꼬리를 붙였다.
먹통이 깨진 바람에 속에 담겨
있어야 할 바퀴가 화려한 볏을 단
닭 대가리가 되었고 낫의 곡선이
잠을 청하듯 꼬리를 늘어뜨리고
횃대에 앉아 있다.

타조 I II (Ostrich I II)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무쇠 꼬챙이가 여남은 개 꽂힌 막대를 땅에 쿡쿡 찍어서 구멍을 낸 후 구멍에 씨를 넣고 흙을 덮어 심는다. 손잡이 중간이 뚝 부러져 나간 이 농기구는 들쭉날쭉 엇나가게 꽂힌 형상이 나뭇가지에 돋은 새순 같다. 오랫동안 사용하여 실 지나는 데에 골이 선명하게 패인 나무 받침대 위에 이 농기구를 올려 놓았다. 베를 짤 때 늘어지는 실을 받치는 받침대이다. 앞에 자루가 긴 인두를 붙여 놓으니 바람을 가르며 기우뚱하게 뛰어가느라 깃털이 곤두선 타조가 되었다. 타조는 꼬리가 유난히 짧은 새이지만 긴 담뱃대를 흔들거리게 매달았다. 새이면서도 날지 못하는 큰 몸집의 타조는 우리에겐 낯선 이국의 새이다. 다급하면 모래밭에 머리를 묻고 숨는다는 바보스러운 이 새를 무연히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다운 순진무구함이 엿보인다. 다른 하나는 갈기를 휘날리며 내달리는 망아지 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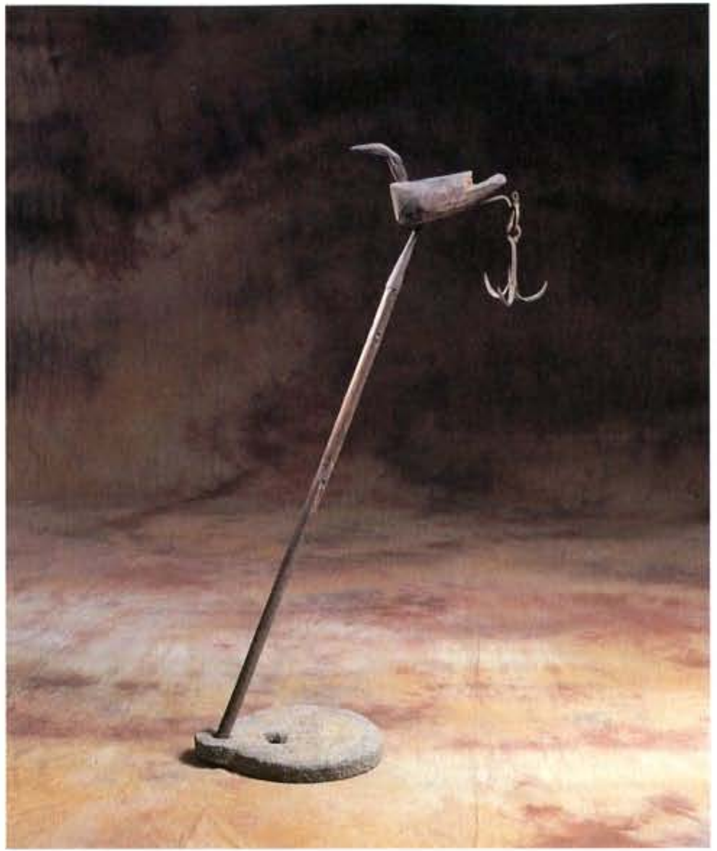
홍학군무
[Dance of the Red Cranes]

나무는 나이가 많이 들면 나뭇가지가
구부러지기 시작하는데 가역지로 멈어질
정도로 된다. 이럴듯 직각에 가깝게
구부러진 나뭇가지를 잡아 만든 소죽고리
여남은 개를 역판을 뒤집어 꽂았다.
소죽고리 모양은 잠자코 조용한 새가
아니라 한결같이 힘차고 생동감 있는
표정이다. 붉고족족한 황색을 띠고 있어서
알맞 홍학 무리가 춤을 추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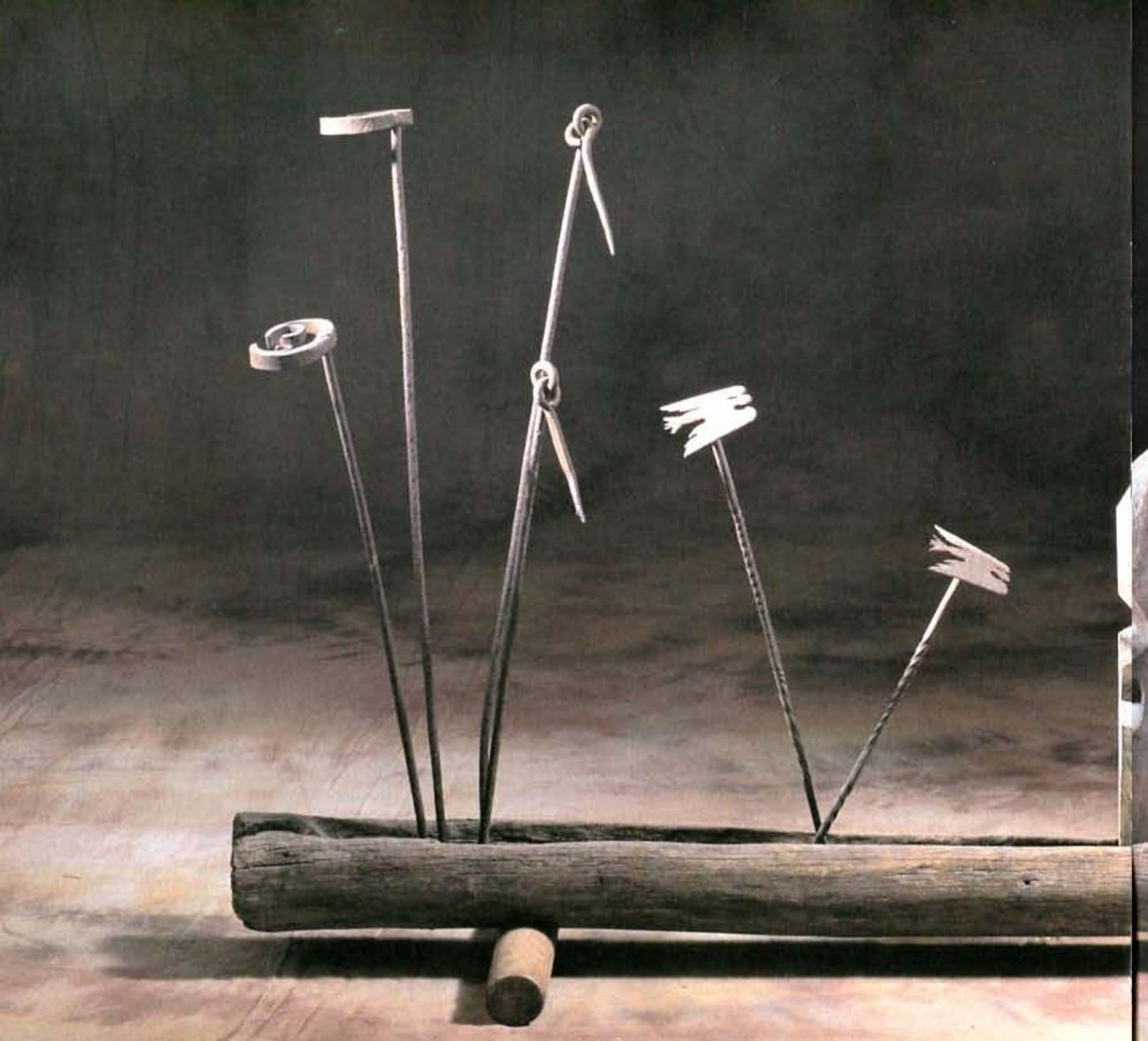
낫 꼬리새 (Hook-tailed Bird)

풀테 손잡이를 몸집으로 히며 낫으로 꼬리를 달고 소여물 주걱으로 머리를 만들었다. 꼬리를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길게 목을 빼어 뒤를 돌아다보고 있다. 새의 시선이 아득하다. 새를 잡바고 있는 하늘마저 적막하다.
아니다, 가을밤 이슥토록 삼실 시르를 시르를 실을 풀테를 돌리며 솜고치에서 실을 뽑던 소리가 들려 온다. 새벽 안개가 사라지기도 전에 소여물이 푹푹 삶기는 소리가 아련하다. 한여름 갈가 뚝들이 푹푹 베어 눕는 소리가 가깝다. 가만 귀 기울이면 낫 꼬리새가 들려 주는 소리가 귓전을 두드린다. 잊혀진 정겨운 정경이 눈에 삼삼하다.



기러기 나홀로 (Lone Goose)

맷돌 손잡이 꽂는 구멍에 컴시초롱의 긴 장대를 꽂았다. 그 위에 나무 기러기를 고정시키고 두레박을 걸어들리는 갈고리를 걸었다. 비스듬히 장대가 꽂힌 각과 들려다보듯 번 곳에 시선을 둔 기러기 목의 각도가 편안하다. 장대에 앉은 새의 자태가 의젓하고 소슬하다.
컴시초롱은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떠날 때, 그리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들어올 때 앞에서 불을 밝히던 등불로, 새살림에 길을 밝아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목안으로 울리는 나무 기러기 역시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혼례 전에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 집에 가져가 바치고 절을 하는 의식을 치른다. 딱을 밟어도 다시 딱을 얻지 않는 기러기의 절개 때문이다.



연못과 새와 고기 (The Pond, Bird and Fish)

기다란 통나무에 홈을 판 담 모이통에 난간을 장식했던 연꽃 두 송이를 심고 새와 박쥐 문양의 풍고리쇠와 고임쇠를 물 꽃처럼 담 모이통 연못 한쪽에 꽂았다. 연꽃이 새를 맞아 웃고 친구를 머금은 연못 속에는 물고기가 놀고 있다.
문득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 연못이 바라다보이는 정자에 비스듬히 누워 쉬면서 연꽃 향기를 맡고 시라도 읊고 노래 부르면서 흥취에 젖어 근심을 잊는다.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으로 문을 닫고 풍경을 읽는 일, 문을 열고 가객을 접대하는 일, 문을 나가 산수를 찾는 일을 꿈꾸던 옛 사람의 풍치를 배운다.

새가 된 나무 (The Tree that Became a Bird)

세 갈래 나뭇가지에 부젓가락 한쌍을 가지 중간에 끼웠다. 부젓가락은 서로 마주 보게 구부러진 고리로 연결시켰는데, 풀어 놓으면 꼭 암수 한쌍처럼 보인다. 우리 자수 문양 중에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꽃, 새, 열매를 형상화한 문양이 있는데, 수많은 이파리가 새인지 꽃인지 열매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만큼 오묘하게 수놓여 있다. 가랑비가 내리고 봄날이 화창해지자 이름모를 싹이 돋아 미끈하게 자란 나무는 가지가 퍼지고 잎이 푸르고 무성한 그늘을 이루었다.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낙엽지는 가을이 되자 나뭇잎이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팔랑팔랑 떨어져 날아가면서 빌어를 퍼뜨린다. 그리고 문득 올려다보면 가지를 벌려 새가 웅크리고 있다. 나무도 새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다.

방울새 (Greenfinch)

쇠방울이나 말방울을 뭉뚱그려 워낭이라고 한다. 소 귀에서 턱밑으로 늘여 다는 워낭은 놋쇠로 만든 간장 종지를 엎어놓은 것만한 크기이다. 그 워낭을 파종하기 전에 이랑에 씨앗 구멍을 내는 나무 틀 양쪽에 달았다. 좀 투박해 보여서인지 방울새는 날지 못하고 소처럼 줄레줄레 걸어다닐 듯 싶다. 방울새 앞세워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 다 털어 버리고 쩔렁쩔렁 즐거운 방울새 소리를 들으며 길을 떠나 새를 넘고 들과 산을 돌아 보고 싶다. 소달구지를 끌고 장터에 나가시던 수십 깊은 아버지의 집으로 방울새 소리를 뒤쫓아 돌아가고 싶다.

갸날픈 여우 (Thin Fox)

발고랑을 파낼 때 쓰이는 연으로 살짝 벌어진 여우 형상의 곡괭이를 머리로 하고 바닷가에서 글 배는 쟁이로 꼬리를 만들었다. 동물 꼬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긴장된 듯 보인다. 그래서 편하고 즐거운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꼬리를 위로 올렸다. 벽장에 오르는 사다리를 밑에 깔고 채발침 나무를 꽂아 다리로 삼았다. 등지를 틀고 여우를 지그시 올려다보고 있는 앞목 새는 사실은 맷돌 틀레에 등나무를 휘어지게 감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서 손잡이로 사용한 틀이다. 이솝 우화에나 나오는 못된 여우가 아니다. 저 가녀린 몸으로 사자를 속이면 도리어 자기 꾀에 넘어가 우스꽝스럽고 측은한 바보탕에 더 되겠는가.

난초 (Orchid)

홀태란 나무 발틀 위에 쇠창살을 촘촘하게 박아서 적당한 부피의 볏단을 창살에 걸쳐 앞으로 힘껏 죽 당기면서 벼이삭을 훑어내는 농기구다. 문명의 이기인 경운기가 들어오자 홀태를 받으며 헛간을 뒹굴다 발틀마저 잃은 홀태는 그러나 그 날카로운 금속성에도 불구하고 올곧고 정결한 난초를 닮았다. 이 홀태 난초들을 나무 개밥통에 심었다. 일부러 짜맞추기라도 하듯 길죽한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개 밥그릇은 홀태의 곡선과 딱 들어맞게 휘었다.

우직한 꽃 (Simple Flowers)

강이나 바다에 가보면 멀리 나무 토막을 맛줄에 엮은 부목이 띄엄띄엄 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부목은 무슨 신호라도 보내듯 물결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거린다.
바닷물에 절어서 거무스름한 부목 위에 소나무 뿌리로 두툼하게 만든 풀솔을 꽂고 옆에는 부서진 수저통과 청동 숟가락으로 꽃과 이파리를 만들었다. 이 고지식하고 우직한 꽃에서 생명에 대한 믿음직한 신뢰가 전해진다.

줄꽃
(Line Flowers)

쇠를 자르는 줄칼 자루에 고려시대
때 도자기를 빚을 때 쓰던 숭가락
모양의 칼 두 개를 꽂았다. 이때는
빛을 잃어 검은빛을 띤 갈색 녹이
슬었으나 그 맵시는 여전하다.
가을철 잘잘한 메른 보라꽃이 긴
꽃대를 타고 피어난 야생화를
연상시킨다.

함박꽃
(Magnolia)

둥글고 커다란 무늬 투심에
청동 숭가락과 대롯으로
장식했다. 흔히 함박 웃는
듯하여 함박꽃으로 불리는 이
꽃은 실은 모란꽃이다.

등잔꽃
(Flowers of a lampoil container)

등잔대 위에 둥근 반달이
장식을 남삭 올리고 청동기
수저를 서너 개 꽂았다.
푸르스름한 청동기 수저의
얌전한 곡선이 너울대는 불꽃이
되었다.

야생초
(Wild Plant)

손잡이를 돌리면서 가을에
목화를 넣으면 씨만 떠로 떨어져
나오는 목화씨 가로는 틀 위에
고려시대 청동 숭가락과
젓가락을 잔뜩 꽂았다. 투식되어
푸롯푸롯하게 녹이 슨 투서진
숭가락과 뾰족뾰족한 젓가락이
틀에서 자라는 풀 같기도 하고
꽃대를 감싼 이파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상한 꽃
(Curious Flowers)

화로 속에 냄비를 올려놓고
떡재를 끓이는 삼발이 가을에
둥근 화로 투심을 올이고 청동
숭가락으로 이파리를 만들었다.
화로는 옛 가옥 구조에서 소중한
기물이었다.
우리 생활도구들이 유난히 자연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옛
어른의 안목과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저 그대로
모아놓았을 뿐인데 꽃이 되었다.

방울꽃 II (Bell Flowers II)

굿을 할 때 무당은 때의 도구인 방울과 부채 등을 쥐고 흔들며 혼이나 신주를 불렀는데, 특히 궁중에 소속되었던 무당은 방울이 많이 달리고 놋쇠에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방울을 사용하였다. 그 방울을 제사 때 사용하는 나무 그릇 위에 청동기 수저와 함께 꽂으니 귀하고 품위 있는 꽃이 되었다.

장생초 (Immortal Flower)

도마에다 나무 주걱과 뭉고리를 섞어 꽂았다. 음식을 만드는 데 도마는 요긴한 기구다. 검고 붉은 색을 띠는, 넙데데한 이 나무 주걱은 장생초 곧 불로초를 닮았다.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상징물로 나무 주걱 장생초가 한 무더기 자랐다. 이 불로초는 효성과 정성이 갸륵한 이들이 신선과 산신령의 현몽을 통해 얻게 되지 않겠는가.

고무래 버섯 (Rake mushroom)

고무래는 긴 막대기에 손바닥만한 나무 조각을 대어 아궁이에 불을 땔 때 불덩어리를 끌어 내거나 재를 덮을 때 사용한다. 흰 나뭇가지에 닮아서 재피적 만찬 나무조각이 붙은 고무래를 닮고 닮은 빨간 빛이 도는 가마니를 구멍에 서너 개씩 꽂았다. 콩밭의 긁은 땅을 헤치고 막 고개를 든 싱싱한 새순 같기도 하고 돌기종기 모인 버섯처럼 보인다.

우리집 마당 [The Front of our House]

2미터 남짓한 돗자리 받침목 위에 상여를 장식했던 닭 한쌍을 창문짝 앞에 마주 세우고 옆에는 벼이삭을 훑는 홀태 두 개와 양끝에는 나무를 꽂았다.
꼴이 제법 깊게 돋은 담장 앞에서 멀어져도 나누듯 닭 한쌍이 정답다.

자화상 (Self-portrait)

목수들은 저마다 독특한 먹통을 만들어 분신처럼 사용했는데, 그래서 먹통은 목수의 상징으로 여겼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먹통이 많이 전한다. 그런데 솜씨가 없었을까, 아니면 가난했던 것일까. 소여물을 퍼담는 주걱으로 먹통을 만들어 썼던 목수생이에 대한 상념이 오롯이 떠올랐다. 매끄 머리를 만든 주걱 안에는 먹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내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평생 섭유로 된 모지기와 자수품을 수집하며 살아온 내 머리속은 그 먹통마냥 온통 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서로 사랑 (In Love with Each Other)

김칫독 뚜껑에 부목을 올려놓고 부서진 가재 한쌍을 얹었다. 아름다운 사랑에서 비롯되어 그지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아온 부부이다. 가난하여 남편 친구가 찾아오면 외상술이라도 받아오는 착한 아내이고, 아내의 안색이 안 좋으면 살뜰한 말 한마디로 녹여 주는 든든한 남편이다. 고난이 닥치면 함께 참고 견디는 동안 배려롭고 미더운 마음을 더하여, 이제 부부는 서로 잘담고 마음 놓이고 아늑하다. 추상하게 한 세월을 살아온 두 사람이 옛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터 (Market Square)

나무 문짝 위에 제기 몇 개를 놓고 그 주위에 돗자리 추들을 주섬주섬 늘어놓았다. 돗자리 추에 끈을 그대로 두어서 추운 겨울날 목도리를 두른 듯이 보인다. 장꾼들이 자신이 가져온 기기묘묘한 물건들을 어지러이 늘어놓고 사설을 풀어놓으며 호객 소리와 흥정으로 북적이는 장터 광경이다. 어물전, 풀물전, 치전, 종이전, 약초전, 유기전, 솥전, 목물전, 세물전….

수다 I II III (Chatter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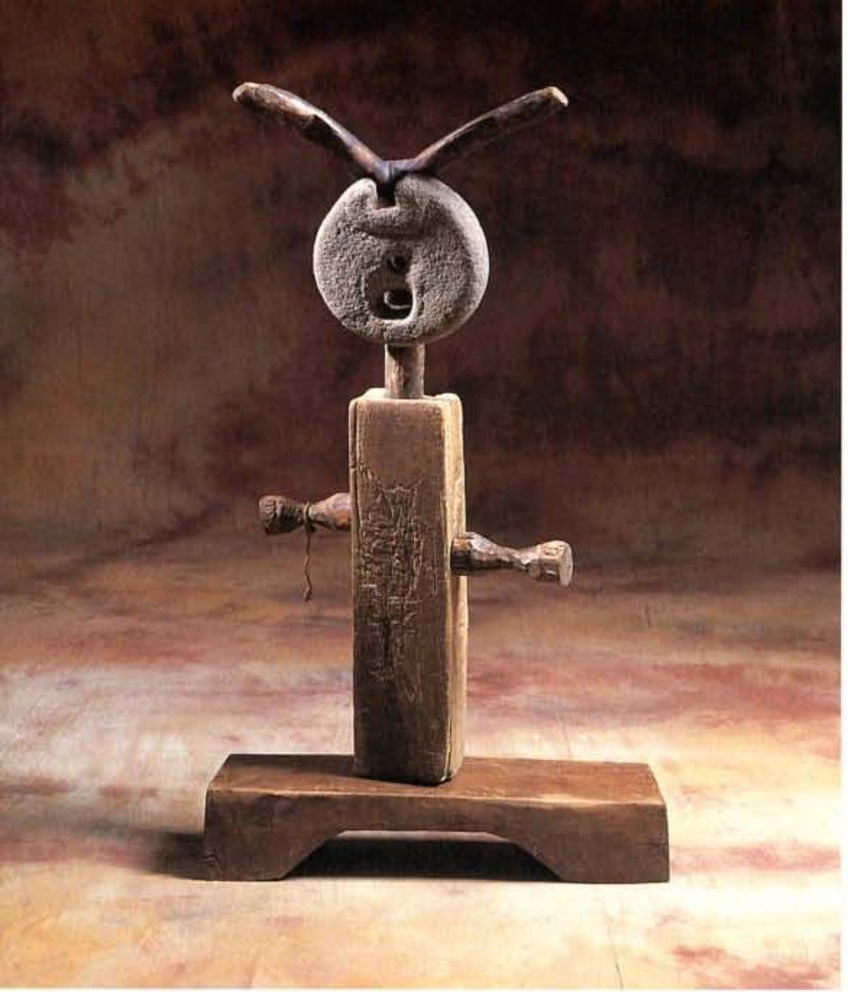
돗자리 추는 대개 주먹만한 자연석을 쓰거나 묵직하고 단단한 나무를 장고 모양으로 깎아 잘룩한 중간에 끈을 묶어 늘어뜨려 사용한다. 밑부분이 펑퍼짐하고 둥근 모양이 영락없이 속고쟁이를 입고 나앉은 여인 모습이다. 한가운데가 움푹 패인 누룩판 우물가에 빙 둘러앉은 돗자리 추 여인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내가 살던 고향 (My Beloved Hometown)

제주도 나무 밥그릇은 돛단배 같기도 하고 엎어 놓으면 초가 지붕처럼 보이기도 한다. 넓적한 멱판을 뒤집어 그 위에 못 쓰게 된 가마니 를 토막 세 개를 올려놓고 나무 밥그릇을 모자처럼 씌웠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삼형제처럼 의좋아 보인다. 문득 먼 날의 고향이 떠오른다.

단오절 (Tano Holiday)

한가운데 둥근 홈이 패인 기름 틀에 나뭇가지를 가로질러 놓고 돗자리 추들을 올려놓았다. 예로부터 단오날에는 새로 돋아나는 수리취나 쑥을 뜯어 떡을 해먹고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부녀자들은 그네를 뛰며 놀았고 남자는 씨름판에서 힘을 겨루는 풀습이 있다.



꾀보 토끼 (Sly Rabbit)

삼발이 나무로 귀를 만들고 도마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다듬이 방망이에 돌려 놓았다. 둥글고 하얀
뱃돌은 골똘한 표정이 어리고 긴 귀가
뭉긋뭉긋거리는 듯하다. 꾀를 부려 용왕에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하여 위기에서 벗어난 동화 속
토끼를 연상시킨다. 아래쪽 양옆에는 돗지리 촉
다리가 달렸다.

화합 (Harmony)

거무스름한 나무 누름판 위에 여러 농기구가
모였다. 키 작고 얼굴이 넙적한 호미,
호리호리한 키에 홀쭉한 낯을 한 낫, 땀땀한
키에 둥글게 휜 갈쿠리가 떼각기 호미질,
낫질, 갈퀴질 등 고달픈 농사일을 마치고
저마다 굽은 허리, 아픈 고개, 저리는 손,
애리는 발을 펴고 들러서 있다. 무슨 얘기에
그리 진지할까. 직수굿한 노동과 땀을 믿고
자연과 우주의 운행에 순종하는 사람끼리
화합하며 살아간 모습을 농기구에서
발견한다.

대보름 (The First Full Moon)

어렸을 땐 부엌을 흔히 정지라 했다. 어두침침한
정지에는 외짝이나 두 짝 여닫는 문 외에 공기를
소통을 시키고 빛이 들어오도록 높직이 창이 달려
있었다.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창살 무늬가 아름다운
이 부엌 창문짝에 대보름 풍경을 담았다.
쇠줄이 삭아서 댓가지가 흘어진 수저통으로 집
올리리와 살짝,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을 문짝에
넣었다. 돗지리 추 대가리는 동실 달로 뜨고 반쪽머리
추로 된 아낙과 남정네가 한쳔에 정겹게 서 있다.

거북이들의 무도회 (Dance of the Turtles)

광은 가을에 거두어들인 벼를 비롯하여 온갖 저장을 먹거리 및 쓰지 않는
세간을 들여놓던 곳으로 넓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광 문짝 위에 가롭한 거북이 부부와 오동통한 거북이 한쌍을 붙였다. 곧이
열리지 않게 가로질러 잠그는 빗장 거북이들이 소근거릴듯 맞대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음을 떼며 움직인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에
맞추어 흥겨운 춤이라도 추는 것일까. 문짝엔 달빛에 구름이 그림자를 흘리고
가고 있는 듯 그늘이 드리웠다.

생과 사 (Life and Death)

마치 그네를 타듯 지석과 등잔대가 마주 하고 있다. 지석이란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자기에 써서 구워 내기도 하고 돌에 새겨 넣은 것으로 무덤에 넣는 부장품이다. 돌에 색채까지 넣은 정갈한 형태의 지석함을 본 순간 그저 삶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려니 여겼던 죽음이 포럿한 모습으로 떠올랐다. 죽음은 삶과 똑같은 무게를 지니면서도 삶의 뒷전에 숨어 있다가 도둑처럼 불쑥 찾아오는 불행으로만 여기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힘 있는 장부 모습을 한 무엄 등잔대를 지석함 앞에 대면시켜 놓고서야 죽음과 삶에 대한 불안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허동화 선생은 빛 바랜 보자기 속에서 미학과 깊어지를 발견하여 자수문화로 승화시킨 우리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안목을 가지신 분으로 사전자수박물관을 통하여 사라져가는 자수품의 보존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즐거움, 만나는 기쁨

허동화 / 사전자수박물관 관장

1993년 히로시마에서 '여성과 색채'라는 주제로 우리 전통자수와 보자기 전시회를 하러 일본을 방문했을 때였다. 일본 작가의 조각품 하나에 마음을 빼앗겼다. 해변에서 수십년 파도에 마모된 나무조각을 주워다가 조립하여 만든 새였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낙지잡이 도구의 아름다운 곡선이 머리에 떠오르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느 어부의 손때와 세월의 때가 묻어 밴질밴질하고 까무잡잡한 그것은 새의 영상을 하고 있었다. 새부리처럼 뾰족한 끝은 두 가닥 혹은 세가닥으로 벌어지고 그린 듯 머리와 목, 몸통처럼 날렵한 곡선으로 이어지고 끝에는 자루를 채우게 되어 있었다. 질퍽한 갯벌에 푹 찔러넣고 죽 당겨봐서 바위나 돌덩어리에 맞질리지 않으면 뾰족한 주둥이가 갯벌을 파고 지나다가 낙지와 뱀장어가 걸려 나온다. 새처럼 생겨서 유독 눈길을 자주 두고 간수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그 길로 나는 작업에 몰두했다. 새모양의 낙지 캐는 도구 손잡이 쪽에 맞춤한 자그마한 쇠갈쿠리를 꿈았다. 그것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그럴 수 없이 어울렸다. 새 한마리가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자태로 가지에 앉아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흔드는 듯 했다. 이 쇠칼쿠리는 우물에 빠진 두레박을 건져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후 여러날, 아니 허구헌날 밤을 도와 미열에 들떠서 작업에 몰두했다. 재미 있었다. 새로운 상들이 계속 떠올라 하룻밤새 몇 점씩 만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작품과 작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의도적인 구상과 타고난 재간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 스스로가 그렇게 되려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느낌에 사로 잡히곤 했다.

모든 농기구나 가재도구들은 필요성에 의해 태어나며, 인간은 잠시 자연에서 빌어와 사용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일까, 그것은 무의식중에 만드는 이가 늘 보아온 자연을 닮아 있다. 또 실용적이고 공을 들여 만드는 동안 자연이라는 신과 교감하게 된다. 늘 곁에 있어서 미처 눈여기지 못한 미학적인 면모가 실용성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이제 실용성을 잃어버린 것들이 내 손에서 다시 구성되고 보니 그것이 지녔던 본래의 아름다운 면모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뿐인가, 나는 곧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는 환각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어느새 60여 점이 넘었다. 거의 대부분 애당초 생긴 그대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조금이라도 원형을 훼손시켜 무엇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신만은 철저하게 지켰다. 버려질 운명에 있었던 가재도구, 농기구, 건축자재들이 내 손을 걸쳐 군학, 새, 신랑신부, 우물가의 이야기 등의 이름을 달고 세상사람 앞에 선보이게 되었다. 전시가 끝나면 내 품에서 떠나 대학 박물관으로 떠날 것이다.

나는 미학을 전공하고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가 아니다. 작품을 통해 명예나 재물을 얻으려 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평생 우리 것의 아름다움 속에 살아오면서 어느덧 우리 것의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대화할 수 있는 눈을 지니게 되었고, 조상의 정성과 생각을 읽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의 뜻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미적 감흥에 젖어 작품에 몰입했을 뿐이다.

조상과 자연과 나의 합작인 셈이다.

이들 작품을 선보인 까닭은 기존 작가와는 다른 색다른 작품이라는 것과 전통적인 공예품에 재생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술계에 대한 자그마한 나의 바람이고,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는 사라진 우리내 풍물에 담겼던 아스라한 기억을 캐고 어머니 숨결처럼 정이 배어들고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던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되새겨볼 수 있길 바란다.

RETURNING TO A TIME LOST, FINDING JOY

Hur Dong-Hwa / Director,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In 1993, I traveled with my collection of embroideries and silk bundle cloths to Hiroshima for an exhibition on "Women and Color." It was there I was captivated by one piece by a Japanese artist. It was in the shape of a bird, made with tree barks smoothed by years of relentless waves.

At that moment, I was struck by the memory of the beautiful lines of tools. I saw images of fishermen, whose skin and hands had turned dark and leathery over the years. In their skilled hands, the curved hooks would come alive, drawing in slippery eels and other delicacies from the murky riversides. The piece on display had triggered my recollection of that familiar fishing tool since both were so bird-like.

On my return from Japan, I immersed myself in my work. I found a metal hook to work with, and I tried to conjure up the

image of a bird with a sharp beak. I was mesmerized by the imagined curves of a bird alight on a branch, swaying its tail. This particular hook had been used to pull up buckets of water from a well. I was obsessed, spending day and night on this project. But I enjoyed myself as well. Every time a new image would come up, and I'd work day after day on new inspirations.

In this way, I began to understand the heart and mind of artists. I realized that creativity was not a deliberate process, nor was it born from some innate talent. Rather, the work itself guided me to completion. Most farm and household tools were invented out of necessity, borrowed from nature. Maybe that is why most of these tools look like they were born spontaneously, and not consciously produced. Not only were they practical, they were a direct link to nature, and therefore to the gods. It's only because we use them everyday that we only notice their utility, and not their aesthetic component. But now that they had lost even their use, in my hands I tried to find their original beauty. It almost seemed that I had gone back in time in search of lost time and values. This was especially so when I was working with wooden rakes and inkwells.

Since then, I have already made 60 such items. Most of them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form. I strictly adhered to my principle that the circle will not be damaged in any way no matter what I made. My hands have given new life to home appliances, farming tools, and construction materials which would have been discarded. They have become creations with names such as combat boots, birds, a newly wed couple, and a child by the willows.

I do not claim that I am an artist who specializes in aesthetics and I was not driven by the desire to gain fame or material wealth. But a lifetime spent surrounded by the beauty of Korean things has given me the power to see the beauty of our traditional artifacts. It has also helped me read the thoughts of our ancestors and appreciate the beauty of nature and God's will. I poured myself into my work with the freedom of aesthetic inspiration. My works are not merely my own creations, they are the results of blending nature and the spirit of our ancestors.

I hope that my creations offer something unique and differ from the works of existing artists. Another wish is that these creations revive the true essence of traditional crafts. But these are only my meager hopes for the art world. For those who come to see my works, I hope they can recover the treasured memories hidden in our landscape and rediscover the beauty of what is ours.

아주대학교 박물관

조상들의 사라져 가고 있는 농기구와 농생활품들을 소재로 한 작품 70여점이
작가 허동화 선생의 뜻에 따라 아주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되어 소중히 전시 보관되고 있다.
이에 작품들의 일부를 작품집으로 엮는다.

아주대학교